복지
한국불교
복지 70년

보시·동체대비 실천 '자비나눔'

2007년 로터스 월드의 BWC 다목적 센터 기공식. 불교계 국제 구호는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지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구호봉사단이 네팔 대지진 현장에 투입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공로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 기증이라는 새로운 복지 분야를 개척해왔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법인산하 어린이집 원아를 안고 웃어 보이고 있다. 인덕원은 삼천사를 설립주체로 법인을 설립해 20여 년동안 노인 · 아동 · 지역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현재 인덕원 산하에는 각분야 28개 시설이 운영중이다.

봉행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기부 문화 확산을 확산시키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외 계층과 각종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진행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같이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불교계에서 설립된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 처음이다.

초대 이사장인 故지관 스님(당시 총무원장)은 창립법회에서 "그동안 조계종은 종교와 이념, 인종과 국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고자 사회 공익활동을 펼쳐왔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공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상임이사였던 세영 스님도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교에는 보시라는 기부문화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기부시스템이 없었다. 보시문화가 기부문화로 자리잡는 데 주력하겠다"고 원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현재 아름다운동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조사, 정책 연구 △사회복지모금사업 △재난 구호 등 인도적 지원사업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고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님들의 연수 교육기간 동안 봉사 등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자비를 실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계종의 경우 승려 연수과정에 자원봉사활동 과정을 넣어 최소 12시간 이상을 자비실천에 진력하도록 했다. 이런 좋은 취지 때문인지 여기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매년 7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원이 발표한 참여 현황을 보면 2010년 7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89명, 2012년 249명, 2013년 3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스님들은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100여 곳 이상의 각 지역 복지시설서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에 자비행을 실천중이다. 특히 이 · 미용을 비롯해 쑥뜸, 상담, 염색체험 지도, 선무도 등 스님들이 출가 전후에 익혔던 재능을 기부하는 등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비의 복밭 가꾸기, 세계로 세계로

글로벌 시대라 말하는 요즘 불교의 자비나눔도 제3세계 국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을 뻗치고 있다. 10여년 안팎의 시간이지만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현재 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 단체로는 JTS(이사장 법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999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해온 JTS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와 북한을 비롯해 필리핀 민다나오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사업 △의료지원 △마을개발사업 △재난시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지원사업은 종교간 갈등으로 가장 열악한 민다나오 지역의 원주민, 무슬림, 장애자 등 소외 계층을 돕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해오고 있다.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 전파를 목표로 한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에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설립, 빈곤아동 복지와 교육사업 의료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2008년 창립해 티베트 인도 미얀마 동티모르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학교 건립 △동티모르 수로 사업 △마을 개발 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가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비를나르는수레꾼'(대표 남지심, 이하 수레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뙙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며 지원사업을 시작한 수레꾼은 3년간 학교 운영지원과 14개의 우물을 파서 기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구호 사업 자체가 동남아시아에 국한돼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특집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61호에서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는 1990년대 5개에서 2010년 이후 35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 국한돼 있다. 이 관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의식주 해결 수준의 자선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 관장은 "한국불교계는 대부분 국내복지사업의 부가활동으로 국제구호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선행사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이는 많은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국제구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초기 재정확보나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현장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또 국내 단체들 간에도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가칭)'불교 국제개발 협력협의회' 구성을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장은 "2011년 더프라미스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과정'을 공개하고 2013년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가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를 구성, '현지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것이 좋은 예"라며 "불교 구호단체들의 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간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적 · 질적 성장을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은 양적 성장면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이다. 하지만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 사업 영역의 편중이다.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창립 15주년 세미나에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현황과 과제'를 살피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불교계 복지시설의 40%가 노인복지시설이었고 영유아 시설은 20.6%, 지역사회복지시설은 11%, 장애인 복지시설은 9.1%로 집계됐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숙인(1.3%), 이주민(2.8%), 여성(1.1%)에 대한 복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연구위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중심의 시설 편중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 다문화 가정 관련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과반수가 서울, 경기, 경북에 집중돼 있다.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영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위탁시설로 복지 시설이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은 정토학연구 19집에 게재한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제하의 논문에서 직영시설 건립과 운영 다각화를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성운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직영시설이 39.9%, 위탁시설이 60.1%로 2배 가까이 위탁시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따라서 불교계가 정부의 위탁 시설 운영에 치중할 경우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위탁기관에서 불교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르지만 직영 시설을 운영하면 자유롭게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성운 스님은 "직영시설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불교적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증가는 더 이상 탁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화돼야 한다. 이것이 복지 포교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체 해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지역복지와 대안가족 복지공생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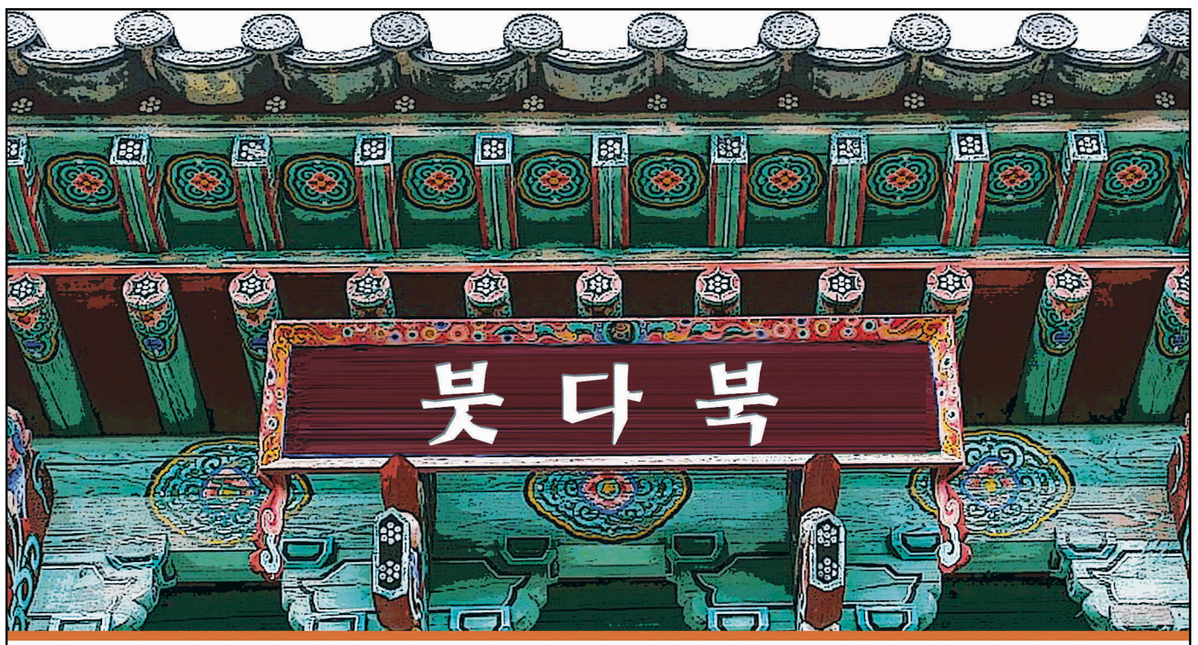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51호에 게재한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 논문에서 "불교복지의 새로운 대응 방향의 하나는 새로운 지역복지와 대안가족의 복지공생체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미래는 가족구조가 바뀌는 시대이다. 1인 가족 수가 2인 가족 수를 능가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 거주 공생체 단지를 만들되 세대별 거주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공간을 만들되 취사와 보육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도 가능하고, 노인과 젊은 부부, 청소년, 아동 등이 필요에 의해 상부상조하는 새로운 대안가족 복지공생체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이라며 "지역화폐의 사용이나, 자원봉사 점수의 저축, 또는 재능기부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환경을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